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0호 [루게 제23172호] 주제99 (2010)년 8월 8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 뜻 깊게 맞이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

총공세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

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공격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각기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이 7월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합기업소에서
천리마제강련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7월 강철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강선이 끊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조국의 로동계급의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긴 이들은 8월에도 충천한 기세로 강철생산에 계속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화선식정

위에서도 용해공들과 습결을 함께 하며 로력투쟁을 힘있게 벌려 강철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부원료, 자재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로동당 대표자 회와 당장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총공세의 불길은 더욱 높이고 있는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상설비생산성과가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에 기계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회선발전선건설과 총합공사화대건설, 4대선행부문에 보내줄 압축기와 굴착기, 변압기와 배터링 등 중요지표 계획과 공업생산계획을 넘쳐

전 65톤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강선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강철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대수 활기를 띠고 힘있게 벌어졌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이미 많은 설비들을 생산한 성과에 대하여 총공기, 압축기를 비롯한 나머지 설비생산에 다그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 하였다. 1기계직장, 3기계직장의 로동자들은 덩치 큰 대상설비들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총공기들의 부속품가공과 조립설비를 부쩍 높였다. 프레스직장과 2주장, 2주물직장의 기능공들은 중요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내부에 비를 적구 탐구동원하여 협동투쟁과 계수행에서 모범을 보였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에서 회선발전선건설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대형기계직장, 조속기계직장, 대상설비조립직장의 로동자들은 강선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회선발전선설치를 언제나 마음속에서 안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1대의 타닌축가공과 여러대의 유압장치, 타닌장치조립을 끝내었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에서 7월 공업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중요대상설비생산성과를 확대하였다. 평양 326전선공장, 함흥청년전기공기, 경성애자공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여러 대상에 보낼 각종 전선, 전기기구, 애자생산을 계속하였다. 문진기공업관리국아래 금성프락트프공장, 회선정밀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 위한 투쟁을 벌려 7월에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공작기계공업관리국아래 여러 공장들과 평양, 양백메아리공장에서도 계획수행의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본사기자 리병준

남강발전소에서

남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상반기계획을 124.3%로 초과수행한데 이어 7월계획도 넘쳐 수행한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당대표자 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높은 열의와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적지시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배인 박경철, 기사장 박영화동무를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들고 있다.
일군들의 총일적인 지휘밑에 모든 전력생산자들이 자기 맡은 초소마다에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직장장들이 흥성성, 김유남동무를 비롯한 전력생산자들은 장마철조건에 맞게 중앙수문보수정비를 잘하여 물이 류설되지 않고 전력생산에 리용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동시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설비정검보수를 제때에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여 발전기의 만가동률 보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력생산의 가장 큰 예비비 기술혁신에서 찾은 전력생산자



당장건 65톤을 높은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석회석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상원석회석광산에서- 리진명 찍음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및 능력확장공사 활발

필승의 기상이고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 혁신을

당장건 65톤과 당대표자 회를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및 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및 능력확장공사대상은 총국으로부터 수습개에 달하며 이 공사들이 완공되면 단천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은 크게 성장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력량을 가지고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

단천지구 광업총국 아래 생산단위들에서
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기 합시다.》
공공시설과 공동호의 전투적업무를 받들고 총국의 기술개건 및 능력확장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전투투쟁을 명백히 세우고 혁명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총국의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및 능력확장공사가 활발히 벌어지는 현장들에서 두말 남기지 않고 직접 발동하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이해주고 있다.
나라의 대규모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좋은 성과가 기록되고 있다. 얼마전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는 13보

의 기술개건과 능력확장공사를 붙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 있다. 이들은 회선로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는 한편 여러 공정을 새로 일떠세우거나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있다. 대용청년영양공판에서 크령가공기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용양광산, 백마위광산에서는 마그네사이트광석가공기지를 새롭게 꾸리고 그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단천광산기계공정에서는 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있다. 단천시약공정에서도 새로운 시약생산기지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전국 농근맹일군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0톤을 맞으며 전국농근맹일군들이 3일부터 7일까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였다.
그들은 보천보혁명전적지, 삼지연못가, 청봉속명지 등 여러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밀영에 건립된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화앞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해산시에 있는 《빛나라 불빛의 행군길》이여 현시비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진 그들은 혁명기후호와 노래들을 힘차게 부르며 력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하였다.
보천보혁명전적지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그들은 당시의 전투지휘와 일제의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변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혁명의 1세대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위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각급 농근맹조직들이 사상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농근로자들과 동맹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압록중산으로 힘있게 불타일으킬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그들은 고향집에 소중한 보초였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답사기간 전국농근맹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시선전선동맹원, 문답식학습동료, 체육경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알곡 생산을 책임진 주인공

평안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7월과 8월은 풀베기 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해농사를 잘 짓자면 풀거름을 많이 장만하여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에서는 올해에 풀고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하고 있다. 도안의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적기에 풀을 많이 베어들이도록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집중하게 하였다. 그리고 베어낸 풀을 집진승우리에 넣어 싹혀내어 집진은 거름을 생산하게 하였다.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풀거름을 많이 장만하여야 땅의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풀베

이런 혁신은 군안의 다른 농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혁신은 군안의 다른 농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자체설정에 맞게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특파기자 김기우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풀베기전투에 힘있게 불타일으키고 있다.
얼마전에도 군당위원회, 군인위원회, 군청농부조직위원회, 군청농부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풀베기전투를 벌려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풀베기전투에 더욱 힘있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설정에 맞게 풀을 집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풀베기실적이 높아지는데 맞게 이곳 농부들에서는 일군들이 풀베기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풀베기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따르세우고 있다.
현장에 나간 농부의

이런 혁신은 군안의 다른 농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혁신은 군안의 다른 농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자체설정에 맞게 풀베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특파기자 김기우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풀베기전투에 힘있게 불타일으키고 있다.
얼마전에도 군당위원회, 군인위원회, 군청농부조직위원회, 군청농부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풀베기전투를 벌려 많은 풀을 베어들이도록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풀베기전투에 더욱 힘있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체설정에 맞게 풀을 집진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풀베기실적이 높아지는데 맞게 이곳 농부들에서는 일군들이 풀베기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풀베기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따르세우고 있다.
현장에 나간 농부의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신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신의주신발공장에서- 신종혁 찍음

우리 당의 대고조전통을 빛내이며 더 높이고, 더 빨리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는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 9월 상순에 소집되게 될 조선로동당대표대회와 더불어 더욱 세차게 나빠진다.

마치도 첫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던 잊지 못할 주제 47 (1958)년과 당 제 4차대회를 빛나게 장식한 기세 드높이 계속 전진하여 주제 55 (1966)년에 진행된 뜻깊은 당대표자회를 맞이하던 그때처럼.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경사로 맞이하자!

새로운 천리마속도, 영양속도를 창조해가는 최첨단건설전진장과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들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 대고조전진장에 울려 퍼지는 이 거세찬 함성은 그대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내어나가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거세찬 분출이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력사적으로 보아도 우리 당은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지 않고 당대회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

새기면 새길수록 위대한 당의 명도말에 백승을 펼쳐온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가득 차오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역사인가.

세상천지를 둘러보아도 우리 당, 조선로동당과 같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로속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 조국면역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온 위대한 당은 없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다. 당의 명도가 없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혁명앞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당대회와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고 온 나라 천만군민의 높은 생산적양양으로 불려일으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위대한 조선로동당, 돌이켜볼수록 1950년대 후반이 온 나라에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주어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도록 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이 뜨겁게 인자된다.

력사의 땅 강산을 찾으면서 대고조의 봉화를 쭉쳐드신대 이어 주제 46 (1957)년 1월 3일 찬바람부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황해제철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 황해제철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협의회를 소집하시고 북구건설과 함께 강제생산계획을 촉구할수있도록 대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력, 자재, 석탄,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제 강철을 단축하여 2만톤의 강철을 증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제강장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에서 일하

는 용해공들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강제 2만톤은 능히 증산할수 있다고 하니 황해제철소에서 강철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증산한다는것은 물론 어려운 과업이다. 그렇지만 동무들은 이 과업이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조건에서 우리 당이 황해제철소에 주는 영예로운 과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그 수행에 적극 열쳐나서야 한다. ...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황철의 로동계급을 대고조적전진으로 힘있게 불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은 그후 순안과 수천, 문덕의 농촌들을 거쳐 2월과 3월에는 황해남도과 함경남도의 홍남과 신포지구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

4월과 5월에도 그리고 피약된 내리쬐이는 무더운 여름에도, 눈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온 한해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전체인민을 천리마대고조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오로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절세의 위인의 탁월한 명도의 손길에 무한히 고무된 전국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은 《천리마를 타고 가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책제철소 (당시) 로동자들은 년산 19만(능력)의 제철설비로 27만톤의 선철을 뽑아냈고 황철의 로동계급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웠다.

어찌 그뿐이랴. 우리 당력사의 한페이지를 찬란히 수놓은 영양속도창조의 거세찬 불길도 바로 그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조국땅은 그야말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올랐다. 그리하여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공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알골생산에서도 혁신적성패를 기록하였다.

주제 47 (1958)년 3월에 소집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이룩된 기적적인 성과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지퍼주신 혁명적대고조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었다.

그렇듯 환희로 들끓던 력사의 순간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1960년대 당대표자회가 앞서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가 열리던 시기에도 체험하지 않았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맡겨진 경제과업들을 당대회적으로 완수할것으로 우리 당에 붙어있어 충실할것을 맹세하며 즐거이 투쟁을 벌리던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히 인자된다.

누구나 걸는것이 성차지 않아 뛰여다녔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해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온 나라의 불도기나마냥 끓어올랐다.

그 거세찬 열풍속에서 함흥지구 의 성천강변에 대비남공장이 일떠서고 신의주와 청진에는 큰 규모의 화학섬유공장이 건설되었다. 김덕의 광부들도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이 모든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이룩해놓은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었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충정의 신념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마저 강그러 바치시며 이룩하신 고귀한 결정체여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추억도 가슴뜨거운것 아닌가.

천리마대고조를 계속 일켜 증산투쟁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명의로 편지를 보내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시기 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시었다.

당대회에서 하일 보고문자성을 비롯하여 당대회준비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옮겨 판별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그러한 속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의들을 지도하시었고 어떤 말에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으니 우리 인민의 가슴에 어찌 충정이 불타지 않을수 있랴.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으로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를 빛내인 기세 드높이 우리 당과 인민은 1966년대 당대표자회도 뜻깊게 맞이하였다.

붉은기 높이 휘날리며 백승의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은 우리 당의 대고조적투쟁을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력사이다.

일제기 1966년대 당대표자회에서 강조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전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혁명적대고조로 현명하게 명도하시어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당대표자회결정판결에서 출판

보도물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어 우리 당의 위대한 사상적무기인 신문, 통신, 방송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력사의 땅 강산을 찾으면서 계속혁명의 불길을 지퍼주시고 돌아오시어는 밤을 밝히며 몸소 온 나라를 새로운 혁신으로 불려일으키는 구조를 제시하여주신분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그이께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드높은 혁명적양양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끄시어 력사에 길이 빛날 창조와 건설의 영웅사시사를 광휘롭게 수놓으시었다.

근반세기에 걸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당행도사는 그대로 대고조의 열풍으로 백승을 펼쳐온 위대한 력사이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명도, 고매한 품도와 필승의 신념과 의지, 강철의 담력과 배정으로 혁명발전의 년대기마다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떠나 존엄높은 우리 당과 온 나라, 내 조국의 백승의 력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장 어렵던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로 대고조의 불길이 기록되었고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오늘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현명하게 이끄신다.

2년전 12월 강산을 찾오시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퍼주신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눈보라강행군, 삼복형량행군,

조강도강행군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그대로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퍼주신 거룩한 자욱으로 빛나고있다.

지금도 조용히 쿠키를이면 100%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에 의하여 《평명성 2》호가 단번에 성공하여 우주에 진입한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메아리쳐 울려오는데 실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존엄높은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으로 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총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오시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껴야 한다. ...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대고조적투쟁을 즐기게 이어 하루빨리 이 땅위에 수령님의 넘칠듯한 빛나실 현현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그렇듯 높으신 뜻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에도 끄떡없이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비약, 대혁신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 아니라.

지나온 자랑찬 력사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명도하시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깊이 절감한 온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당이 쭉쳐낸 대고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뜻깊게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국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 새긴다. -만수대안역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조선인민군 군위 서훈명령서 제 105 명조사단에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1960년 8월 25일 부대군인회관 정문제양우에 새겨진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만족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오늘날도 만사람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 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품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적구호는 군인대중의 심장을 울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정을 최대로 촉발시켜 영웅적위업으로 불려일으키는 힘있는 사상정신적무기이다.

그러한 전투적구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기에 잊지 못할 50년 전 그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는 우리 인민군인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대로 담은 좋은 구호이라고, 구호 하나만 보아도

부대안의 정치사상이 잘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고, 인민군대가 제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심에 아니었던가.

주제 65 (1976)년 2월 초하루에도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적적요구와 인민군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어 우리 총련 병사들모두를 주체의 전군위업성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그때 인민군지휘정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군인들을 수령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라면 목숨바쳐 무조건 수행하는 등적대, 결사투쟁 만드는데는 군인들의 기본인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나팔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이는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적적요구와 당과 수령을 목숨바쳐 사수하려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였다.

하기에 구호는 제시되자마자 군인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전군에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받들며 수령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의지,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결사옹위, 결사판결의 기치가 더욱 높이 나팔쳤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군사로선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생활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선군명장의 품도가 뜨겁게 비껴있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구호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모든 부대들이 불멸의 글자로 새겨져 군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기 하는 혁명적기치로 세차게 빛날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전군을 주체사상화해에 대한 구호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메시지, 매 단계마다 전투적인 구호들을 제시하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 주시었다.

《출련도 전투다!》, 《출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혁명대식으로!》,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을 7련대가 되자!》... 주체의 전군위업성행의 전과정에 틀어쥐고나가야 할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총적목표와 그 수행방도가 명시되어 있고 수시로 제기되는 군사정치정세의 요구와 그에 따르는 대응책이 뚜렷이 밝혀져있는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앞에 제시하신 전투적구호들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적전진장에서 영웅적위업을 창조해가고있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날에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소할바령외의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세포백십들과 자주 만나 담화하시면서 당세포와 당소조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정황에서도 자립적으로 사업해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었다.

주제 29 (1940)년 가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령부당세포비서를 부르시어 투쟁이 간고해질수록 당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꼭 회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잡자리에 들기 전에도 좋고 밤먹을 때에도 좋은 나 수시로 대원들과 담화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투쟁조건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튼튼히 기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에서 인민들과

의 관계를 약화시킬수 있는 자기마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걸

영활무쌍한 군사적지략으로

항일혁명투쟁 전기간 그러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대사변의 시기에도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명활한 정치군사활동으로 모든 소부대, 소조들을 전투적위훈으로 불려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위중대의 일부 성원들로 구성된 소부대를 친출하고 인건원발제투부근 도목구수립속어림시기지를 정하고 활동하셨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많은 적 《토벌대》들이

을 받은 적들은 온밤 제편끼리 벽벽에야 아연실색하여 제 소굴로 몰려가버렸다.

깊이 심어주신 조국애

주제 32 (1943)년 가을 조국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철하게 판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

어느날 조국에 대한 이야기 모임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에게 우리 나라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말 그대로 삼천리금강산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대대로 이 땅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화목하게 살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하여왔다. 그런데 오늘날은 일제침략자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땅을

을 받은 적들은 온밤 제편끼리 벽벽에야 아연실색하여 제 소굴로 몰려가버렸다.

가라앉고있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계속하시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제침략자들의 구두발밑에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조국,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고있는 조국인민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사바퀴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도탄에 빠진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학습과 훈련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조선혁명의 주인된 자욱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백두의 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신을 통하여 찾아와서 뜻깊은 8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자랑한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장군님의 천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배짱이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자신은 그의 영웅남이다는 배짱과 끈, 열의의 의지가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백두의 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신을 통하여 찾아와서 뜻깊은 8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자랑한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장군님의 천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배짱이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자신은 그의 영웅남이다는 배짱과 끈, 열의의 의지가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백두의 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신을 통하여 찾아와서 뜻깊은 8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자랑한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장군님의 천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배짱이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자신은 그의 영웅남이다는 배짱과 끈, 열의의 의지가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백두의 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신을 통하여 찾아와서 뜻깊은 8월의 이 강산에 뜨겁게 자랑한다.

인제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장군님의 천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는 배짱이 장군의 배짱이고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자신은 그의 영웅남이다는 배짱과 끈, 열의의 의지가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산의 정기를 담은 친출위인의 의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철칙같은 믿음에 기초하고있는 신념이며 실사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열매번 깨어진대도 배부유하게 만사를 처리해나가는 담대한 기상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리는 대야금기지 - 김철

생명선을 지켜가는 대고조의 선봉투사들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철의 하늘가에 불노음이 퍼져나간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시대의 기발미 되고 불꽃이 되어 힘차게 내달리며 상반년에 이어 7월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김철의 로동계급이다.

우리는 불의 대화가 쉬임없이 흐르는 철의 격전장에서 중진의 불노음속에 비친 이곳 로동계급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금속공업부분의 로동계급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십장검이 새기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릴으로써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지난 6월말 연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정으로 끓어올랐다.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열리려는 소식을 김철사람들 모두가 크나큰 환희속에 접하였다.

올해 정초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명사대장대고조의 신봉에서 영웅적으로 내달려온 이들, 험하지 않은 격전

의 나날속에 다지고다져온 김철의 힘은 7월에 또다시 드세찬 열정의 불화구를 터쳤다.

일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김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

중임원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이런 총정의 일념이 차넘쳤고 비상히 양양된 열의속에 전투장마다에서 전례없이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 그 밑바탕에는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만자들의 분분을 다해나가기려는 이들의 불타는 자각이 진하게 숨배어있었다.

철강재생산의 전초선을 지켜선 보장부분의 로동계급은 용감한 공격전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장마철전에서도 판수중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수송관과 대관 정장적인 순회점검과 기동성있는 판보수작업을 립체적으로 벌이며 중계장마다에서 만가공의 동음을 힘차게 울려갈 때 송풍기작업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예비대조성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 어떤 조건에서도 최물생산에 필요한 비바람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큰배에 이 실려 힘없이 쏟아져 내리는 소결광, 그 흐름속에도 소결부분 로동자, 기술자들

의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대들의 만가공을 보장하며 생산을 다그쳐나가기어느날 소결 2직장에서는 시급히 설비보수를 진행해야 할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수해야 할 구간의 온도는 백수십℃, 한초가 귀중한 때에 열이 식기를 기다리다니는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말도 되지 않았다. 작업반장들인 박경수, 한경수동무들이 앞장서서 서서 서서 한 고열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만 누구 하나 물러설법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들이 김철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기어 이들은 며칠이 걸려야 할단편 수리를 단 6시간만에 끝내고 중진의 동음을 또다시 즐기치게 올려나갔다.

어찌 이렇뿐이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에서 험거운 전투를 벌려가며 누가 알아주진않지만 목회철강재중산에 이바지하고있는 승업 1작업반 당세로미서 박경수동무를 비롯한 판방보수작업반 로동자들의 감동적인 투쟁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에 다 전하지 못했다.

쇠물은 뜨겁다. 하지만 여기 철의 도시에서는 쇠물보다 더 뜨

거운 애국헌신의 열정이 흐르고있음을 높여온 용광로의 슬결은 말없이 전하고있다. 김철로동계급의 본분을 시위하며 월선철생산계획을 일정보다 앞장서 수행해나간 어느날이었다. 용광로작업 2호용광로 출선구에 뜻하지 않게 불이 일어났다. 출선구를 빨리 막지 못하면 쇠물생산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미칠수 있었다. 그때였다.

《비키라.》

미처 말릴새도 없이 출선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는 3작업반 로동자 박훈동무였다. 사나운 불과 사람의 대결, 긴장하게 흐르는 한초한초... 일마루 고르름속의 숨쉬는 로에서 잘 익은 쇠물이 쏟아져나올 때 모두가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있었다.

《저 쇠물이야 우리 김철사람들의 생명이지 아니요.》

예측할수 없는 위험을 동반하는 정황속에서 로를 구원해낸 그가 후연히 웃음을 지어 한 말이었다.

조국의 휘황한凱을 위하여 땅에서는 시련도 고난도 달게 여기며 오직 하나, 쇠물생산을 위해 모든것을 장그러바쳐가고있는 이들의 심장속이기에 불경이 되었건 되었건 그것은 과연 무엇이던가. 그것은 바로 김철이 대고조의 앞장에

서 소리치며 내달리기를 바라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이요 그 믿음이 기어이 초당적로는 로동계급의 깨끗한 충성이다. 쇠물을 떠나서 그 무슨 용해공이고 김철사람이라 하라.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신념이고 의지였으며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발휘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으니 뜻밖의 정황에서 용광로의 슬결을 지켜본 전기작업반 당세로미서 김철동, 박훈동무들과 축적작업반 원일연, 리명주동무들의 마음속에 또 이 애국헌신의 무의기들이 뿌리내려있었다.

크나큰 믿음안고 불굴의 정신력으로 날아달라! 빛나는 위훈의 서사시를 아로새겨가는 김철의 로동계급, 이들의 투쟁에서 우리는 당과 뜻을 같이하고 슬결을 같이하는 영웅적로동계급의 열의 기상을 보며 하나로 세차게 고동치는 그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는다.

당의 부름이라던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절대적, 투쟁정신의 정신을 지니고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더 높은 중산성파로 맞이하기 위해 험한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김철의 로동계급이 있어 생명선의 슬결은 날마다, 시간마다 더욱 높아지고있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의 뿌리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인생관입니다.》

연합기업소에서 날아달라! 이룩되고있는 헌신적인 새 소식들의 밑바탕에는 철강재생산자들을 증산투쟁에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는 보장부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위훈도 진하게 숨배어있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쇠회석은 기업소의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부원료의 하나이다.

김철의 생산정황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청암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광산에서는 높아진 목표에 맞게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는 사업에 신장적인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해 발파공수를 확대하면서 그 수준을 최대한 높여 단속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환공방법을 개선하고 발파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밀고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광산에서는

도 한차례의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원만히 달성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지금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더 많은 광물생산으로 강철중산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헌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집단적헌신의 불길높이

주철용광로의 연료생산을 맡고있는 무연알탄정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집단적헌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의 생산과정에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산화로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 실행한데 힘입어 생산량을 창안하여 적극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실수율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설비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데 힘을 집중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탈탄성형기를 비롯하여 탈탄성형기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과 보수정비사업을 잘하여 알탄의 생산량을 높이고 그 질을 더 높이고 있다. 승리의 신심과 락판

에 넘쳐 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과감히 실천해나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알탄생산에서는 날아달라! 헌신이 창조되고있다.

성실한 노력을 바쳐

전기자동차작업의 일터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은 열간압연 및 열간재용합성공정을 운영하는 데서 심장부라고도 할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오늘의 대고조전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있는 임무를 십장검에 간직한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누가 보진않건, 알아주진않건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고 있다.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조연작업반, 완성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탈탄성형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도전을 정확히 분석, 종합하여 현대화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열간압연작업 3호가열로개보수전투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데 대고조의 승리가 있고 조국의 강성대국이 있습니다.》

당의 믿음을 십장마다에 새겨안고 철강재생산에서 일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기업소의 여러 단위 전투원들이 우리 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열간압연작업 3호가열로개보수전투에서 날아달라! 헌신을 창조하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대중의 십장마다에 깊이 심어주는 한편 전투현장에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가열로개보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는 것과 함께 전투적인 작전과 지휘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위훈장조자의 열의를 빛내일 불타는 열정을 안고 기업소의 여러 단위 전투원들은 당의 요구처럼 산악도 뚫을듯한 강한 기세로 개보수전투를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헌신의 불길은 로해제작업에서부터 세차게 타올랐다.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격동적인 편지를 보내고 대고조전투를 호소한 철의 기지의 로동계급답게 공사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불과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에 달하는 강철구조물과 방대한 량의 벽돌해체작업을 예정보다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전속도에 보폭을 맞추어나가기어 이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욱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고평철동무를 비롯한 연합기업소설계원들의 고집이런 노력에 의하여 지금 전투현장에서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립체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소결 1직장, 열동력 2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자들의 투쟁으로 하여 수만장의 벽돌가공작업이 짧은 기간에 끝난데 이어 강철구조물제작과 조립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전투장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세차게 나래지고있다.

보수 3직장, 산세직장, 열동력 2직장의 전투원들은 강철구조물제작에 필요한 수시에 달하는 자재를 예비로 탐구동원하여 원만히 해결해나가고있다. 제2 2직장의 전투원들은 판방공사에 필요한 편제제작을 립체적으로 벌리고있으며 단조직장, 가공 2직장, 가공 3직장, 열처리직장의 전투원들도 구조물조립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하루빨리 공사를 완공할 일념을 안은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강철구조물제작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으며 지상확대식조립방법과 같은 대담하고 용이한 시공방법들이 도입되어 강철구조물조립에서 보폭이 더욱 넓어지고있다.

여기는 더 많은 소결광을 생산하여 용해공정에 보내주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소결 2직장 생산현장이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정과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자.》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위훈으로 부르는 격동적인 구호들이 심장의 벽을 팽창 두드린다. 드넓은 작업장을 누비며 가르도록 쭉쭉 뻗어온 큰배아들과 각종 설비들의 동음이 대기각중 설비들의 기동소리인양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어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성전 배합공정을 맡은 로동자들이 원료들을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배합해나가라 드바쁘다.

《용해공정에 소결광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이렇게는 더 많은 첫 공성전 배합공정에서부터

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젖소로 동으로 안내하는것이였다. 젖소 호모안에 들어서니 피동피동 살던 젖소들이 있었는데 마친 착수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격전의 시간이 흐른다

소결 2 직장에서

력하는 이들의 열정을 담았을가 볼의 세계를 걸친 정화로소소결대차가 들어가자 정화로들이 시퍼런 불꽃이 휩싸이며 순식간에 불타오르리리 변한다. 로해공정의 따뜻한 구리빛일군마다에 기쁨의 미소가 한껏 이르고 잘 구워진 소결광들이 서서히 파쇄공정을 거쳐 광장에 옮겨진다.

《당대표자회를 증산성파로 빛내이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소결광들을 보십시오. 벌써 오늘계획의 많은 몫을 해체했습니다.》

동행한 일군의 신심에 넘쳐온 소결광이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헌신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

투소보들이 전투장 여기저기에 나뉘고 보지만 해도 마구호호해지는 소결광들이 후더운 김을 내뿜으며 큰배에 이 실려 용해공정으로 넘어간다.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할 일념으로 뛰어넘는 속에 격전의 일념이 흐르는 일터, 창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신봉에서 기세차게 내달리는 김철로동계급의 투쟁분배가 그대로 안겨오는 생산현장이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당대표자회를 증산성파로 빛내이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소결광들을 보십시오. 벌써 오늘계획의 많은 몫을 해체했습니다.》

동행한 일군의 신심에 넘쳐온 소결광이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헌신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

《당대표자회를 증산성파로 빛내이기 위해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소결광들을 보십시오. 벌써 오늘계획의 많은 몫을 해체했습니다.》

동행한 일군의 신심에 넘쳐온 소결광이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헌신적인 소식을 전하는 전

실적이 계속 오르게 된 비결은 천군 송현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풀베기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느날, 하루실적을 따져보면 온천군 송현협동농장 일군은 생각이 깊어졌다. 실적이 전날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알고보니 가까운 주변의 풀을 거의 다 베어들어 풀원천이 부족해진 데 원인이 있었다.

《풀원천이 많은 곳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 더 많은 풀을 베수 있지 않겠는가.》

그날 저녁 회의회에서 농장 일군은 풀원천이 풍부한 오석산자구에 노력을 집중하여 풀베기를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풀베기정형을 매일 장악하고 총화사업을 간지게 하는 문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솔게 배합하는 문제, 경제성동을 활발히 벌려 농장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풀베기전투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합시다.》

낮으나 웅성길게 들려오는 리당일군의 말에 농장일군들이 호응해나갔다. 농장에서는 올해 모내기과 김매기때에도 청년들을 적극 발동하여 영농공정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었던 것이었다.

농장일군들은 청년들의 열의를 높여 오석산자구에서 수천의 풀을 짚는 기간에 베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었다. 풀베기전투장을 이곳으로 옮기던 날 농장일군들과 청년들은 농장에 정중히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편지지도 목숨을 찾았다.

농장의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되새기며 고향향을 더욱 기뻐지게 가꾸어 위대한 장군님의 신군형평평도를 높은 알곡생산성파로 만들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었다.

불같은 그 맹세는 곧 실천으로, 실적으로 이어졌다. 붉은 기쁨이 휘날리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화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풀베기전투장은

볼다가마냥 끓어번졌다.

한계 작업반에서 수십명의 청년들이 한곳에서 풀베기를 진행하니 작업능률이 훨씬 높아졌다.

높이 세운 하루풀베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헌신자대렬이 늘어났다. 그들속에는 자기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그대로 영광의 땅을 기를수우려는 밀가루를 만든다 하면서 하루 1이상의 풀을 베어들고있는 제 1 1작업반의 서철, 제 2 2작업반의 변순화동무들도 있었다.

어찌 이렇뿐이라. 하루계획을 수행하고도 성취하지 않아 땀더미를 더 높이 쌓아간 제 2 2작업반원들, 그날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장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단의 풀이라도 더 베어들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린 제 3, 1 1작업반의 농장원들...

풀베기실적은 나날이 올라갔다. 결과 농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나 더 많은 풀을 베어들어는 헌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활연옥

우리는 얼마전 금야군청년목장을 찾았다. 금야강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번듯하게 일떠선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골짜기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집집승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젖소로 동으로 안내하는것이였다. 젖소 호모안에 들어서니 피동피동 살던 젖소들이 있었는데 마친 착수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얼마전 금야군청년목장을 찾았다. 금야강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번듯하게 일떠선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골짜기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집집승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얼마전 금야군청년목장을 찾았다. 금야강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번듯하게 일떠선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골짜기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집집승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얼마전 금야군청년목장을 찾았다. 금야강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번듯하게 일떠선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골짜기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집집승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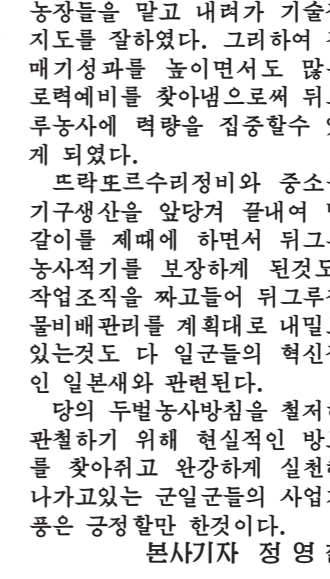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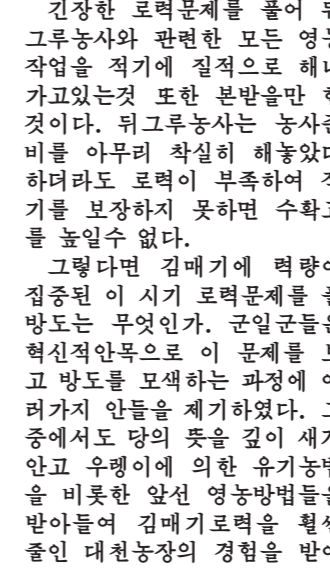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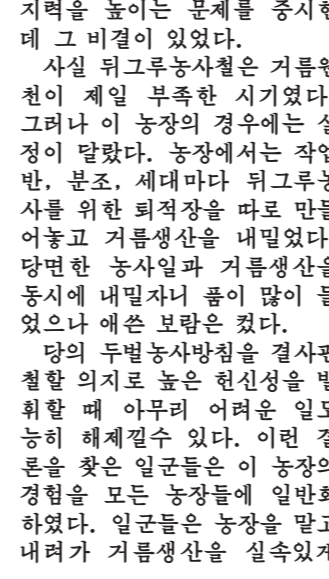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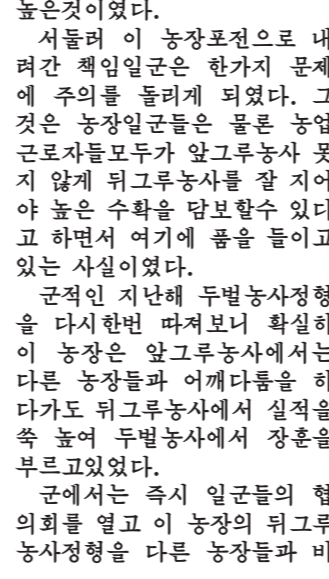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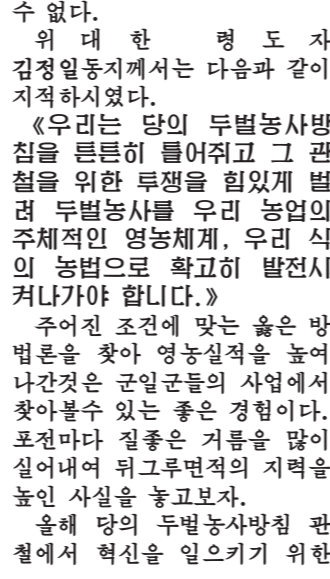
우리는 얼마전 금야군청년목장을 찾았다. 금야강기슭에 아담하게 건설된 문화주택들과 번듯하게 일떠선 문화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골짜기를 따라 규모있게 들어앉은 집집승호동물... 강사에게 펼쳐진 목장의 모습은 자랑스러운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이 고기를 넘쳐히 먹을 때까지 풀먹는집집승기르기를 내밀자는것이 말이 목장인 줄입니다.》

목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성철동무는 지난 기간 돌먹는집집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난년도 많았다고 해도 많았습디다. 하지만 예로부터가 있어 이제 해마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하고있었다.》



1 사리원기초소식물공정에서 진행된 명절을 맞아 위아저씨 집체적행사를 더 많이 진행시키고 있다. 위아저씨 집체적행사를 더 많이 진행시키고 있다. 위아저씨 집체적행사를 더 많이 진행시키고 있다.

경제성동의 위력으로 대고조전투를 적극 고무추동

최근 각지 예술선전대들과 기동예술팀들이 평안남도안의 중요관공을 대항 집중경제성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성동의 위력으로 대고조전투를 적극 고무추동
최근 각지 예술선전대들과 기동예술팀들이 평안남도안의 중요관공을 대항 집중경제성동을 힘있게 벌려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

악기를 메고 지하막장으로

각지 예술선전대, 기동예술팀들에서
세계가 타인지는 오늘의 총진군은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대중의 정력을 총폭발시켜 총진군을 더욱 다그치는데서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 특히 예술선전대들과 기동예술팀대들의 사명과 임무는 자못 중요하였다.

수도건설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수도중심부의 살림집건설이 들끓고있다. 그곳에서 그칠줄 모르고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는 또 얼마나 격동적인것인가.
건설자의 거센 숨결이 땅을 울려오는 노래소리에 이끌려 우리가 찾게 된 사람들은 다름아닌 자강도예술선전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노래만 안고 온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완공하려는 뜨거운 진정성을 가슴에 안고 달려왔다.

자강도 예술 선전대원들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경에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비단 건설자들에겐만 맡겨진 일무가 아니라 바로 경제선전대원들이 우리자신이 받아안은 영예로운 과업이기도 합니다.
당의 부름에 심장의 박동을 들으며 이념의 집중경제성동에서 자강도사람들의 기상과 본분을 다시금 떨칩시다.》
그의 말은 모두의 심장을 격양시켰다.

지 악기를 메고 들어가 《그의 리상》, 《레일을 믿으라》와 같은 힘있는 노래와 선동으로 탄부들의 심장에 불을 활활 지펴준 이들의 투쟁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깊었던가.
특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로, 또다시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로...
예술선전대원들과 기동예술팀대원들이 투쟁의 노래 높이 울려가는 곳마다에서는 상반년도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 혁신적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성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전투장마대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분히 허머 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양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그 노래보다도 모든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대에서 경제성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릴것을 요구하고있다.

7. 8월혜양체육월간에 더욱 흥성이 넘치는 창광원 수영장,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요즘 여는 계절보다 매일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세력이 바다로 뻗어 나가고 강이 맑기때문에 누구나 다 수영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창광원 수영장의 물은 언제나 맑고 시원하다. 하지만 손님들의 드높은 수영열의로 하여 날마다 뜨겁게 달아있는듯 한 수영장은 그들의 수영수준은 각이하다. 주위를 따라 자유로이 헤엄치는 수영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의 변두리에서 기초초작을 배워가는 초학도들도 보인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시바빠 수영수준을 따라잡으려는 배심이 비쳐보인다.
김정식, 정성희동무부를 비롯한 이곳 수영보급원들의 정실한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수영선수들이 자라났던가.
본사기자 정영화

뜻깊은 올해에 경제성동화동을 보다 즐거우게 벌려갈데 대한 목표를 세웠다.
당에서는 여러 협동농장들이 달려나간 당면한 영농전투를 끝내는 포전마다에서 다채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창신한 경제성동화를 벌이고있다.
지난 대고조전투에서도 높은 혁명열정을 안고 경제성동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둔 이들은 김대기전투에서도 포전마다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왔다.
당의 사상이 높이는 힘있는 방동선동이며 전투적인 노래와 화살같은 목소리를 높여 경제성동을 힘있게 울려주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포전에 달려나간 그들의 진군가를 높이 울려주는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살로써 우리 당을 받들고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락원을 일떠세울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워주는 경제성동화동은 당대표자들과 보다 높은 노력정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힘있는 포전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김 순 희

기초동작들을 얼마나 알기 쉽게 배워주는지 1시간반만에 50m나 되는 주로를 헤엄쳐 갈수 있게 되었습디다. 마음껏 헤엄치고 달려다니는 즐거움은 배울수 있는것이 수영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부지런히 훈련하여 이제는 먼거리도 얼마든지 헤엄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외국수장기간 그 나라의 수영장에 가보았는데 수질이 창광원의 수영장과는 대비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훌륭한 수영장을 마련해준 당의 은정에 다짐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들이 리용하는 창광원의 물에 한걸리라도 섞일세라 완벽한 물공급체제를 세워준 당의 사랑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을것인가. 한없는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최근년간 물속세계가 더욱 개신된 창광원이다.
창광원 수영장에 차년 치는 드높은 수영열기, 이것은 단순한 배움의 열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이 낳은 기쁨이 아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에 감사 김철동무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2년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영을 전혀 할줄 몰랐습니다. 창광원 수영장의 덕을 크게 보았습디다. 수영보급원 김정식동무가 수영

꽃피는 선군문화
창광원 수영장에 차년 치는 드높은 수영열기, 이것은 단순한 배움의 열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이 낳은 기쁨이 아니다.
당의 크나큰 은정에 감사 김철동무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2년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영을 전혀 할줄 몰랐습니다. 창광원 수영장의 덕을 크게 보았습디다. 수영보급원 김정식동무가 수영



어려한 병사로 자원 손자의 소식을 받고 웃음꽃 피운다.
-한주식 남동생 김정식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찍음

중 조우 호 방문 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신기 중국국제우호련락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 조우 호 방문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 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제정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석께서는 나라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다.
모래동주석, 주은래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통적인 중 조우 호를 마련해주셨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중국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되신다.
중 조우 호 방문단은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고 이곳 강사들인 박찬수, 양광기 공화국영웅들과 상봉하였다.
방문단원들 리대상은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선에 참전 한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은 조선인민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싸우면서 철학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었다고 말하였다.
피로써 맺어진 중 조우 호는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방문단은 또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으며 한주식 단장이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철도부대원사기념비와 지방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묘들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나미비아서 남아프리카 인민조직당 총비서를 의례방문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나미비아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대 사회와 자카르타에서 열린 청년기발목표리행 검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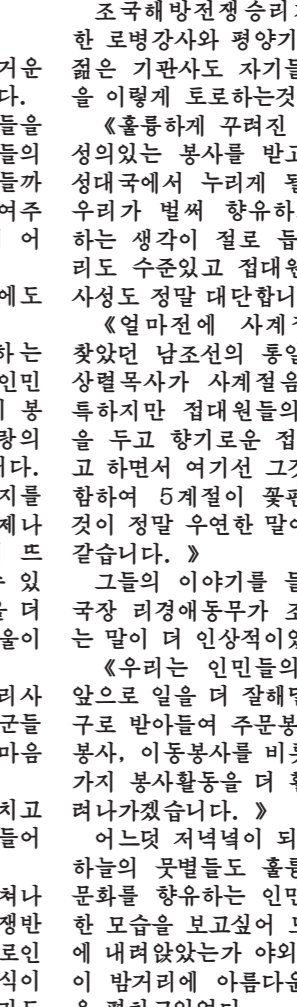
상급특별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월남, 라오스, 만마,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던 박의춘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박의춘 외무상 부상과 주조 월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자, 말레이시아의 외교대표들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봉사기지에 인민의 기쁨 넘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료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의 생활양식과 식생활문화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평도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창광봉사관리국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힘찬 투쟁을 벌여 모든 식당들을 세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 놓고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차도로향하여 조성된 잔디밭은 마치도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것 같고 아름다움 모자이크화들과 화려한 전방관들은 어서 오라 부르는것만 같았다.
우리와 만난 부국장 리경애동무는 외부시설도 특색있지만 내부는 더 멋들어지게 꾸려졌다고 하면서 여러 식당에 안내하였다.
우리가 처음으로 들린 곳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깃들여있는 강령복차를 비롯 각종 차와 고급음료를 봉사해주는 은정차점과 여러가지 메기리료를 봉사해주는 메기탕집이었다.

창광봉사관리국 아래 식당들을 돌아보고
자기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 음식물을 선택하고있었다. 뿐만 아니라 봉사원들이 약기가 큰 건강보양음식과 음료들도 손님들에게 알리면서 친절한 봉사를 진행하고있었다.
관리국에서는 당조직의 지도 밑에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에 의한 봉사관리체제를 도입하고 특색있는 건강보양음식과 음료들도 봉사원들이 접대봉사의 문화성과 수준을 더욱 높이는것 등 봉사방식을 대담하게 혁신하였다.
카드식봉사의 우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이 카드에 입력되는것과 동시에 해당 식당의 주방에서는 주문한 음식자료에 따라 요리사들이 미리 준비했다가 손님이 도착하면 즉시 음식을 봉사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단지 김대기리로서 한사람만이 아닌 이곳 일군들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진 말이다.
이러 우리들은 수세미와 마치고 나오는 손님들의 변명도 들어 보았다.
민족적인 향취가 짙게 넘쳐나는 창광산국수집에서 고기쟁반 국수를 시원하게 든 어떤 로인은 뽀뽀하고 우리 음식이 제일이라고, 한미탕 솜이라도 추고싶은 기분이라고 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로명강사와 평양기관차대의 젊은 기관사도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것이였다.
《훌륭하게 꾸려진 식당에서 성의있는 봉사를 받고보니 강성대국에서 누리게 될 행복을 우리가 벌써 향유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료리도 수준있고 접대원들의 봉사성도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전에 사계절식당을 찾았던 날조선의 통일인사 한 상명목사가 사계절음식도 독특하지만 접대원들의 봉사성을 두고 향기롭게 접대시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것까지도 포함하여 5개월이 꽃피고도 한 것이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닐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국장 리경애동무가 조용히 하는 말이 더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인민들의 변명을 앞으로 일을 더 잘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 주면봉사, 초정봉사, 이동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더 활발히 벌려나갔습디다.》
어느덧 저녁녘이 되었다. 저 하늘의 꽃물들도 훌륭한 음식문화를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싶어 모두 여기에 내려앉았는가 싶어장식들이 이발거리에 아름다운 황룡경을 펼쳐지었다.
백 성 근



수세미 오미와 민속

수세미오미는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즐겨 먹고 가꾸어온 터밭공예작물의 하나이다.
수세미오미를 지난 시기에는 그 향기가 마치 하늘이 풍기는 향기와 같다고 하여 《천리》, 스스로 얼어붙지 자연섭유와 같다는 뜻에서 《천리사》라고도 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이러한 수세미오미를 생활용품, 화장품, 약재 등으로 널리 리용하였다.
제때에 가늘어 썬것을 벗기고 씨를 털어낸 다음 씻어내리워 그릇을 비롯한 여러 가지 등을 닦는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발겉개, 실

내화, 모자실지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수세미오미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줄기를 자르거나 흙집을 내려 거기에 흘려나오는 액을 받아 살결물로도 리용하였으리라 짐작, 리노약으로도 썼다.
그리고 수세미오미는 홍역, 풍치, 허리아름 등을 치료하는데도 썼다.
우리 인민들은 살림집의 울타리였으나 마당앞에 수세미오미를 심고 덕대를 맨 다음 도넛클림을 울려 무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였으며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소리를 들으며 바라보면서 다정한 정서를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수세미오미는 살림집의 풍치를 더해주는 좋은 관상식물의 하나로 전하고있다. 또한 수세미오미는 식물이 가지고있는 약효성으로 하여 고추냉이와 약비레까지 지는 특성이 있다.
이밖에 수세미오미를 삶은 다음 생강과 식초 등으로 양념하여 음식으로도 먹는 풍습이 있었다.
이처럼 수세미오미는 사람들의 생활에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는 좋은 허브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먹고 가꾸는 식물의 하나로 전하여온다.
민속학연구소 박사 리재선

중국에 가는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 출발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에 가는 최광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이 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도착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엔도 노부야키 단장으로 하는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 조선대학도 학생 조국방문단 출발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리영수, 김세창학부장들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도 학생 조국방문단 출발

총련 조선대학도 학생 조국방문단들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